

[현장] 이명박정부 출범100일 '지긋지긋하다'

노동과 세계 | 승인 2008.06.03 23:43

3일 서울시청광장 노동자, 학생 등 시민 3만여명 집결 '이명박퇴진' 외쳐

[사진1]

이명박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은 6월3일, 간간히 비가 흩뿌리는 가운데 3만 시민들이 서울 시청광장에 모여 '협상무효 고시철회, 이명박 퇴진, 어청수 퇴진, 연행자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다시 촛불을 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찰폭력이 극심한 상황이고, 이날까지 시민 5백여명이 연행됐고, 100여명이 다쳤으며, 3일 하루동안 77명이 연행된 상태라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집계 상황을 알렸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민주노총도 가세했다. 민주노총은 시청광장 촛불문화제에 앞서 청계광장에서 3천여 대오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치고 시청광장 촛불문화제에 합류했다. 시청광장에 결집한 시민들은 민주노총 합류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민주노총'을 연호하며 뜨겁게 환영하는 등 비상한 국면 속 민주노총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실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진작부터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참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촛불)배후가 누구인지 확인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고 일성을 토했다.

홍 위원장은 "오늘 장관이 얘기한 재협상은 그야말로 흉내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비판하고 "모든 매체가 말하듯이 오늘 발표는 굴욕청탁에 불과하고, 이번 과정 통해 쇠고기문제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음모가 있는지를 다 알게 됐다"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홍명옥 위원장은 이어 "광우병 문제와 함께 대운하, 의료민영화, 교육자율화, 가스, 물, 전기 등을 모두 팔아먹으려 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연맹 지도부들이 국민 촛불과 함께 총력투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2]

이날 자유발언을 신청한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명박정부 출범 100일이 100년된 것처럼 지긋지긋하다"고 말한다.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의 어느 정도인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시민은 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 이명박은 미국산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물론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도 하겠다고 자기 혼자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고 "호랑이 없는 산속에서 혼자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멧돼지를 국민이 막아야 한다"며 투쟁을 호소했다.

그는 현 대통령을 한 신문이 멧돼지로 비유한 사실을 들어 "멧돼지는 있는 힘을 다해 조종등을 옆에 끼고 국민 방송을 먹으려고도 하지만 진실한 우리 국민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견을 짓밟고 목살하는 대통령, 가난한 자의 등골을 짓누르는 멧돼지같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가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인권활동가는 "몇일 동안 경찰 과잉진압과 폭력에 희생된 시민들을 뵈고 병원을 다니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한탄했다.

그는 "청와대 앞에서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을 4명의 전투경찰이 둘러싸고 군화발로 짓밟았는데 어떻게 교복입은 학생을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있냐"고 개탄하고 "국민대책회의가 의료지원단을 꾸려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늘(3일) 피해시민 14명이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그는 또 “부상당한 시민들이 고소인으로 참여하겠다며 속속 제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폭력에 때문에 부상한 시민들 제보가 필요하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수개 대학이 동맹휴학을 결정하고 오후 수업을 거부한 채 이날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성공회대 총학생회장 유민 씨는 “이명박정부의 3개월이 3년같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며 현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피력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학점을 매긴다면 단연코 에프(F) 학점”이라고 진단했다. 시민들은 우레와같은 박수와 함성을 지르며 동의를 표한다.

유민 씨는 “지난 5월2일 청소년들이 든 촛불을 이제 대학생들이 지켜내고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대학생들이 오후 수업을 거부하고 나왔다”며 동맹휴학이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87년도 민주화물결이 그랬듯이 전민족적 저항이 진정한 승리로 나설 수 있도록 대학생이 맨 앞에 서서 희망역사, 승리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의 불도적 정책은 애초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는 국민실패시대, 국민지옥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이 나서서 불도저를 폐차시키고 이명박정부 실패시대를 지금부터 만들자”고 강조했다.

[사진4] 전남무안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산다는 한 여성농민은 “지금은 농번기철이고 씨앗을 심어야 되고 마늘 양파를 거둬들여야 할 시기인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경찰이 우리 아이들을 발로 차고 눈을 멀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상경해 식발했다”며 분개해했다.

그는 “지금 무 하나에 2천원이 가면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마늘 1킬로에 2천원이 가면 관리대상 품목이 된다”며 “돈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로 들어가 서민들 생명줄을 앗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미쇠고기협상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명박이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빗속에서도 참가시민들은 질서를 유지하며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협상무효 고시철회, 이명박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자유발언 등을 이어갔다. 어떤 참가자들은 아예 맨발로 서거나 앉은 채 촛불을 지키는 모습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우 실장은 “미국 현지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하지 못하는 협정문을 그대로 놔두라는 게 국민 요구였나”라며 3일 이명박정부의 30개월이상 미국산쇠고기 수입 중단 발표의 기만성을 질타했다.

그는 “국민요구는 협상 무효화하고 재협상하라는 것인데 협정문 한글자도 바꾸지 않고 자율규제한다는 게 바로 이명박정부”라고 격양했다. 우 실장은 “한미쇠고기협상 완전 무효화, 전면 재협상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즉각 중단, 환경 파괴하고 도시 땅부자 배 불리는 대운하정책 중단, KBS, MBC를 조종동에 팔아먹는 방송민영화 중단, 노동자 비정규직화 중단, 국민권리와 생명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국민요구”라며 “촛불이 미국산쇠고기 협상 전면무효와 전면 재협상의 그날까지 계속 돼야 하고, 이제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청광장 촛불문화제는 약 1시간여 동안 이어졌고 저녁 8시40분 촛불대행진이 시작됐다.

3만여 시민은 일제히 경찰폭력을 사주한 여청수 경찰청장 물러나라며 서소문 경찰청앞까지 행진하고 “연행자 석방, 여청수 퇴진’ 등 거세게 항의하고 다시 세종로네거리로 집결했다. 경찰은 세종로네거리 이순신동상 앞쪽에 차벽을 세우고 병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세종로네거리에 1차 저지선을 구축했으며 시민들의 세종문화회관 방면 진입 자체를 차단해 거리 이곳저곳에서 시민들이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를 벌이고 있다.

저녁 11시50분 현재, 시민들은 왕복8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협상무효 고시철회, 경찰청장 여청수 퇴진, 이명박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찰 차벽이 철옹성이 돼 청와대로 향하려는 국민들을 막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공동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토론회를 개최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특별취재팀/노동과 세계>

[표시작]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 “다 죽는다” 곳곳 울분 청소년들 “관심 없던 시위, 투쟁 알게 돼 ‘고맙다’”

[사진3]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이 각계각층에서 “100년 같다”는 원성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민주노총(정책연구원)과 민주노동당(진보정치연구소)이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민생고를 듣는다’ 토론회에서 노동자, 농민, 상인, 학생들이 나와 ‘이명박 정부 100일 국정’에 대해 각기 울분을 터뜨렸다.

“우리는 버려진 국민일 뿐”이라고 말을 댄 김소연 기륭전자 지부장은 “인수위를 찾아간 적도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 안 하지 않느냐, 니네가 지지하는 곳에 찾아가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길에 최동렬 기륭전자 회장까지 데리고 간 것은 최 회장처럼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된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000일 이상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 지부장은 “지금 구로디지털단지에는 파견 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며 “일요일 특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해고 문자 메시지를 받는 끔찍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천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나종구 씨는 “작년부터 사료가가 1포대에 7천원에서 12,000원으로 뛰더니 수입쇠고기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20개월 동안 뼈 빠지게 키워봐야 큰 소 한 마리가 송아지 값밖에 안 된다”며 “이제는 ‘광우병 담론’으로 한우도 먹지 않은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나 씨는 “광우병이 동물성 사료를 먹여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료가 비싸 수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를 먹여본 적이 없다”면서 “사료 값이 70~80% 뛰고 있는데 정부는 송아지 값 안정 대책으로 10% 보상 운운하고 있다”고 정부대책을 비난했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태현 씨는 “상인들에게는 대형마트의 시장 잠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형마트 규제 못 한다’고 하고 있다”며 “IMF 이후 가파르게 하강곡선을 그리다 최근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로 시장장악을 하면서 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씨는 “몰락의 원인인 대형유통재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결집이 필요한데 당이 힘써줘야 한다”며 “비정규직, 농민들이 해체되며 가는 마지막 과정인 유통 쪽 상인들을 보듬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 사단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당 학생은 “이전에는 친구였는데 ‘우열반’으로 나뉘면서 모두 ‘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며 “청소년은 ‘새싹’이라더니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짓밟고 있는 형국”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정 학생은 “11시까지 ‘야자(야간자율학습)’하는 한 학생은 ‘야자 빠지면 4개월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학원에 가야하는데 학원비가 없어 부모가 걱정이 돼 어쩔 수 없이 야자에 가고 있다’고 한다”며 “장장 16시간을 학교에 있으면서 하던 동아리 활동도 접게 되고 ‘이민 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울먹였다.

함께 나온 임충한 학생은 “지난 5월2~3일 청소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곳의 대다수는 교복을 입고 촛불은 든 청소년이었다”며 “‘살려달라! 난 아직 15년 밖에 살지 못했다’ ‘5년 뒤면 우리들 세상인데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고 꽃다운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라며 참석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임 학생은 “최근 촛불문화제 청소년들 참석이 줄어든 것은 학교에서 ‘징계처리’ 협박 때문”이라며 “고시가 통과되고 경찰이 시민들을 폭행하고 강제연행 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관심 없던 시위, 투쟁을 알게 된 점과 없던 애국심을 갖게 해줘 ‘너무 고맙다’”며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 동안 청소년이 달라진 점을 어느 고3학생의 편지를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어느 고3학생이 쓴 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말도 안 되는 친미행위를 벌이시는 이명박 대통령님을 보면서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한나라당 정권이 무서운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몸으로 직접 알게 되니 정말 두렵습니다. 아직 청소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는 우리들은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학교 급식에는 제일먼저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고요, 겉으로는 창의력 교육이다,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교육이다 라고 하지만 학생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학교자율화라는 이름으로 0교시부활, 10시 이후 야자 허용, 주입식 교육의 발전 등을 밀어붙이시는 이대통령님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청소년도 국민이다, 급식 먹고 죽기 싫다, 미친 소는 물러나라!

하지만 이 외침을 듣는 건 이대통령이 아닌 우리 앞에 서있는 전경들뿐이었습니다.

국가의 경제를 살리시겠다고 대운하 뚫으시던 엄청난 파워 가지고 계신 이대통령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운하사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시겠다...

결국 막노동 하시는 분들 늘리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대운하사업 끝나면요. 아, 임기 끝나실 때가 되겠군요.

저는 이번에 이 대통령님 덕에 새로운 일을, 새로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학생이란 신분으로 시위도 해보고,

처음으로 국민이란 신분으로 시위도 해보고,

썩은 국회의원들 지적도 할 줄 알게 됐습니다.

어른들은 말씀하시죠, 어린 너희가 나라 정치에 대해 뭘 아냐고.

너희는 아직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학연, 지연 등을 따지며 대통령을 뽑고 시장 등을 뽑는 어른들보다는, 무지하게 그저 바라만 보고 욕만 하는 어른들보다는, 권력에 의존해서 그저 강한 사람만 따라다니는 어른들보다는 학연, 지연 그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청소년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통령님이 취임하신지 100일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 서민들의 편한 삶을 위해 변화시킨 건 뭐가 있으셨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 왜 서민들을 위해 하신 일이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저 극소수의 상위권들을 위해 힘쓰시는 이대통령님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네요.

이대통령님한테 고마운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면 늘 반대하시던 부모님께서, 집회라면 끔찍이 싫어하시는 부모님께서 이제는 제게 '가서 다치지만 말라'고, '힘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저희 부모님을 변화시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국민들이 하나라는 것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국민들이 하나가 된 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청소년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대통령님. 당신은 대한민국 CEO가 아니시고요, 당신은 나라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자일 뿐입니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표끝]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